

한국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Development of Daily Hassles Scale for Children in Korea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소비자아동학과
박사과정 한 미 현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소비자아동학과
교 수 유 안 진

Dept. of Consumer and Child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Doctorial Course : Mi Hyun Han

Dept. of Consumer and Child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 An Jin Yoo

〈 목 차 〉

I. 서 론	V. 요약 및 결론
II. 이론적 배경	참고문헌
III. 연구방법 및 절차	부 록
IV. 연구결과 및 해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the Daily Hassles Scale for Children in Korea. The subject were 444 children of 184 fourth graders and 260 sixth graders selected from five elementary schools in Seoul(217 male and 227 female). A questionnaire consisting of 90-item daily hassles scale, demographic questions, and some additional questions was used as a methodological instrument. Statistics used for data analysis were X^2 , Cramer's V, factor analysis, multi-regression, Pearson's r, Cronbach's α .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87 items of the 90-item scale were acceptable through item discriminant method. The discriminant coefficients of the items(Cramer's V) ranged from .28 to .73.

2) 6 factors(parents, home environment, friends, studies, teachers & school, the surroundings) were extracted from factor analysis. Multi-regression analysis conducted to reduce the length of scale have drawn 42 items for 'the Daily Hassles Scale for Children in Korea'. The correlation between this scale and the Quality of Life Scale

(Olson & Barnes, 1982) was conducted to test the criterion-related validity, and the coefficient was significant($r = -.52, p < .001$).

3) Finally, reliability coefficients(Cronbach's α) of this scale was .85.

I. 서 론

1. 연구목적

인간의 생활은 개인과 환경간의 교환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 교환과정이 자유스럽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유아기부터 모든 인간은 환경에서 적응을 요구하는 잠재적으로 위협적이고 도전적인 상황들을 접하게 됨으로써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데(Compas, 1987), 스트레스는 개인내적, 대인관계적, 그리고 환경적 체계의 상호작용과정에서 유발되므로 인간은 거의 모든 생활국면인 환경에서 다양한 스트레스 사건에 노출된다고 볼 수 있다(Lempers & Clark-Lempers, 1990). 이와같이 환경이 인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환경적 요인보다는 개인적 요인을 더 강조하였다. 그러나 개인적 요인에 초점두던 경향은 생태학적 관점이 대두되면서 환경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Felner & Felner, 1989).

생태학적 관점에 따르면, 해로운 환경상황에 직면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상호교류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면 장애의 위험이 증가하는데, 이는 가중된 환경적 요구와 그에 따른 스트레스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한다(DuBois et als., 1992). 이런 이유로 개인의 적응 및 안녕에 영향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스트레스가 주목받게 되었고, 스트레스를 주제로 상당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스트레스를 다룬 기존의 연구들은 다음의 몇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는 스트레스의 유형과 관련된 문제인데, Lazarus와 Cohen(1977)은 스트레스 유발사건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의 강도와 범위에 따라 세가지 유형의 스트레스를 제시하였다. 한가지 유형은 대다수의 사람에게 격변을 일으키거나 극심한 영향을 주는 전쟁이나 지진 등의 재난적 사건이고, 다음은 가까

운 사람의 죽음이나 부모의 이혼 등, 소수인에게만 한정된 영향을 미치지만 당사자들에게는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주요한 생활사건이다. 마지막 유형은 교통체증이나 물건의 분실 등과 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경험하는 사소한 문제거리, 즉 일상적 스트레스가 해당된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다룬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두번째 유형인 주요한 생활사건에만 초점 둔 것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일상적 스트레스는 거의 매순간 경험되는데도 불구하고 생활사건만큼의 관심이나 연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Kanner와 동료들(1981)의 견해에 따르면, 일상적 스트레스는 몇 개가 동시발생적으로 나타나 복합적인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하나의 생활사건보다도 더욱 위협적이 되기 쉽다고 한다. Charles Buroski 도 일상적 스트레스를 '그 자체만으로는 그다지 심각하지 않지만, 그것의 누적은 사람을 정신병원으로 보내는 사소한 문제거리'라고 정의(최창호, 1993에서 재인용)하면서 일상적 스트레스의 영향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논의와 관련하여 근래에 들어 일상적 스트레스를 포함하여 스트레스가 개인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는 몇몇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 주요한 생활사건보다도 오히려 일상적 스트레스가 개인의 적응을 예측하는데 설명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Holahan, Holahan, & Belk, 1984 ; Zarski, 1984). 따라서 개인의 적응 및 안녕에 미치는 스트레스의 영향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활사건보다도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사소한 문제거리, 즉 일상적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것이 보다 적합한 것이다.

기존의 스트레스 연구에서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두번째는 연구대상과 관련된 것으로, 많은 연구가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져 왔다는 점이다. 스트레스가 마치 성인들만의 문제인 것처럼 취급되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만, 청소년이나 아

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그다지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Newcomb과 동료들(1981)은 성인기보다도 오히려 청소년 중기가 스트레스 생활사건의 발생이 절정에 달하는 시기라고 주장하면서 청소년기 스트레스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근래들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활발히 행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아동의 스트레스를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Causey & Dubow, 1992). 그럼에도 아동들의 스트레스를 조사한 최근의 몇몇 연구결과를 보면 아동도 청소년이나 성인 못지 않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Compas & Wagner, 1991 ; Dubow & Tisak, 1989 ; Larson & Asmussen, 1991), 스트레스가 정서적 부적응(Compas, 1987) 및 신체적 건강상태(Jacobs & Charles, 1980)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종전에는 스트레스를 성인 혹은 사춘기 이후 청소년들만의 문제인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제는 정상적이고 건강한 아동도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일생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인 아동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스트레스 연구의 관심이 주요한 생활사건에서 일상적 스트레스로 돌려지고, 또한 아동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전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연구를 하려고 해도 아직까지는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신뢰롭고 타당한 척도가 개발되지 못한 상태여서, 청소년 혹은 성인의 스트레스연구에서 사용되는 척도를 부분적으로 인용하거나, 문화적 차이를 도외시한 채 외국의 척도를 그대로 번안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의 사회문화적 상황에서 아동이 경험하는 일상적 스트레스의 유형 및 정도를 보다 잘 파악하고 또한 이에 관한 활발한 연구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이 시급하다. 이러한 인식에서 이 연구는 한국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측정할 수 있는 신뢰롭고 타당한 척도의 개발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2. 연구문제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선행연구 및 면접결과를 토대로 개발되는 '한국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는 신뢰롭고 타당한가?

이 연구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 요건의 검증을 실시하고자 한다.

- 1) 한국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의 양호도는 어떠한가?
- 2) 한국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의 타당도는 어떠한가?
- 3) 한국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의 신뢰도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스트레스의 개념

'스트레스'라는 용어는 현대인에게 일상용어 중의 하나가 되었다. 아무리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이라 해도 현대인은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스트레스라는 용어는 Selye(1956)가 "생활 스트레스(The Stress of Life)"를 발표한 이후로 여러 학자들(David & Vernol, 1979 ; Evans, 1982 ; Mcgrath, 1970 ; Mechai, 1979)의 관심의 주제가 되어 왔지만, 연구자의 관심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일치된 개념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즉 Selye(1956)는 스트레스를 신체에 가해진 어떤 요구에 대하여 신체가 수행하는 일반적이고도 비특정적인 반응이라고 정의하였다. Mcgrath(1970)는 개인이 지각하는 환경요구와 반응능력 사이에 계속적으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인지평가를 내릴 때 스트레스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David와 Vernol(1979)은 스트레스를 '긴장감을 유발하는 강하면서도 불유쾌한 정서적 힘이나 압력으로 적응과정을 위협하는 어떤 조건이나 상태'로 정의하였으며, Mechai(1979)는 '특별한 환경에서의 개인의 불편감'으로, Evans(1982)

는 '여러가지 복잡한 생활에서 생겨나는 압박감'으로 정의하였다.

이들 학자들이 제시한 스트레스 개념의 공통점을 찾아 종합해 보면, 스트레스란 생활하는 가운데 개인에게 가해지는 여러가지 요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긴장이나 압박감 등의 정신적, 신체적 반응으로, 개인의 심리 및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2. 아동기와 스트레스

아동기는 6, 7세부터 12, 13세에 이르는 시기를 말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보통 국민학교 시기가 된다. 이 시기의 아동은 성장을 재촉하는 압력과 사회적 규제가 충돌하는 시기로서 빨리 성장해야 한다는 책임과 변화의 부담 뿐 아니라 정서적 부담도 생길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에 이르러 가족 밖의 다른 성인이나 또래, 책, 매스컴의 영향을 받게 되고, 가정이나 이웃에만 국한되었던 생활환경이 학교라는 보다 넓은 범위로 확대되어 감에 따라 규칙적인 생활과 다양한 사회적 적응의 요구를 받게 된다. 더구나 현대의 급속한 사회변화로 아동에게 기대와 요구가 많아져 아동들은 미처 준비가 되기도 전에 다양하고 고도의 성취를 해야 하므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경험(Elkind, 1983)하게 된다.

아동의 생활에서 생기는 스트레스 요인은 성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요인과 비슷하지만, 아동들은 아직 발달단계에 있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기라는 점과 아동들이 직면하는 많은 스트레스 요인들이 대부분 성인들에 의해 유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더구나 아동들은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다(Medeiros et als., 1983)는 점에서 더욱 관심이 요구된다.

3.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측정도구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척도는 Felner와 동료들

(1988)이 개발한 DHQ(Daily Hassles Questionnaire)이다(DuBois et al., 1992). 이 척도는 원래 Kanner와 동료들(1981)의 DHS(Daily Hassles Scale)을 본따서 만든 것인데, 총 81문항의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되어 있다. 척도구성에 포함된 문항들은 광범위한 예비연구를 통해 선정된 것으로, 이는 형제와의 다툼, 친구 혹은 선생님과의 갈등, 학습환경, 부모님과의 관계 등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들이 전형적으로 겪는 일상적인 문제들을 반영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높은 내적신뢰도($\alpha = .95$)를 보여주었으며, 기준변수인 적응지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줌으로써 구인타당도도 지지되었다(Rowlison & Felner, 1988)고 한다. 응답방식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심각하다'(4점)의 4점 척도형이며, 모든 문항에 대한 응답을 합한 총점으로 스트레스의 정도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조사대상자

이 연구에서는 아동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유형 및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 소재 국민학교 4학년과 6학년 남남아동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일반적으로 아동기를 6, 7세부터 12, 13세까지로 보지만(Elkind, 1983), 이 연구에서는 질문지를 조사도구로 사용이므로 질문지 답변능력을 고려하여 저학년 아동은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대상의 표집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편중되지 않도록 서울시 토지지가분류표(한국감정원)를 참조하여 5개구에서 1개 학교씩을 유의표집하고, 각 학교에서 4학년과 6학년 1개반씩을 선정하여 총 10개반 470명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성격은 <표 1>과 같다.

<표 1>을 보면, 6학년이 4학년보다 비교적 많았는데 이는 부실기재된 경우의 대부분이 4학년 아동이었기 때문이며, 성별의 분포는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연령은 조사일을 기준으로 만 나이를 산정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변수	구분	빈도 (%)
학년	4학년	184 (41.4)
	6학년	260 (58.6)
성별	남자	217 (48.9)
	여자	227 (51.1)
연령	8세	8 (1.8)
	9세	136 (30.6)
	10세	46 (10.4)
	11세	191 (43.0)
	12세	63 (14.2)
양친유무	모두 계심	416 (93.7)
	아버지 계심	15 (3.4)
	어머니 계심	13 (2.9)
형제수	없음	57 (12.8)
	1명	251 (56.5)
	2명 이상	136 (30.6)
가족형태	핵가족	323 (72.7)
	3세대 직계가족	92 (20.7)
	2세대 동거가족	29 (6.5)
	계	444 (100)

하였는데, 연령별 분포는 11세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9세, 12세, 10세, 8세순이었다. 가정환경에서는 양친이 모두 계신 경우가 대부분이며, 형제수는 1명인 경우가 가장 많고,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2. 조사도구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세 측면을 조사할 수 있는 광범위한 측정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Felner와 동료들(1988)의 Daily Hassles Questionnaire, Dohrenwend와 Shrout(1985)의 Hassles Dimensions, Lempers와 동료들(1989)의 Economic Hardship Questionnaire와, 류수영(1993), 윤혜정(1993), 천민필(1993), 한미현(1993), 및 최창호(1993) 등, 아동의 스트레스에 관한 기존의 국내외 척도들을 수집하였다. 다음으로는 기존의 척도들이 포함하지 못한 측면과, 부모들의 과

잉교육열로 인한 문제 등 우리나라의 독특한 사회문화적 성격과 관련되거나 혹은 최근에 새롭게 대두되는 스트레스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2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실시한 후, 면접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문항들을 침삭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본 연구에서는 총 90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만들었으며,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의 3점 척도로 하였다.

한편 이 연구에서 개발되는 척도의 기준관련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한 기준변수로는 Olson과 Barnes(1982)의 삶의 질(Quality of Life) 척도를 사용했다. 이 척도는 아동 및 청소년들이 그들의 일상생활과 주위 환경에 대해 느끼는 만족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인데,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방법은 가족, 친구, 친척들과의 관계, 가족의 경제적인 문제, 현재 살고있는 주거지, 학교생활, 이웃, 자신의 특성 등에 대해 매우 불만족(1점)에서 매우 만족(5점)까지의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높은 점수는 일상생활 및 주변 환경에 대해 만족하여 전반적인 삶의 질이 높은 것이 된다. 요인 분석결과 전체 문항 모두 한 요인에 포함되며, 신뢰도는 $\alpha = .85$ 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25개 문항 중, 하위영역별로 핵심이 되는 문항을 하나씩 선정하여 5개 문항으로 삶의 질 척도를 재구성하고, 이를 기준관련 타당도 검증에 위한 기준변수로 삼았다. 이는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삶의 질은 낮아져 두 변수간에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론되기 때문이다.

3. 조사절차

본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조사도구의 구성을 위해 1995년 4월 10일부터 4월 15일까지 20명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자가 직접 또는 전화를 통해 개별면접을 실시하였으며, 면접시간은 약 20분 정도 소요되었다. 선행연구와 면접결과를 토대로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작성한 후, 본 조사는 1995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3주간에 걸쳐 총 47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458부가 회수되

었는데, 이 중 무성의한 응답과 부실기재된 경우를 제외시키고 최종적으로 444부를 분석자료로 삼았다.

4. 자료분석

본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의 처리를 위해 SA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연구문제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양호도를 알아보기 위한 변별도 분석은 전체응답분포를 토대로 상위 27% 집단과 하위 27% 집단을 분류한 후, 개별 문항에 대한 반응빈도가 두 집단간에 차이가 나는지를 χ^2 검증을 통해 살펴보고, 관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는 Cramer의 V계수를 산출하였다.

타당도 검증을 위해서는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회전은 varimax회전방법을 선택하였다. 또한 보다 적은 수의 타당한 문항으로 척도를 정선하고자 요인별로 단계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기준관련타당도는 본 척도의 측정값과 기준이 되는 척도의 측정값간의 상관관계로 나타나므로, 이의 검증을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서는 내적합치도 지수인 Cronbach의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문항 양호도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를 개발하기 위한 첫 단계로, 문항들이 변별도면에서 양호한가를 알아보기 위해 χ^2 값과 Cramer의 V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문항의 변별도를 알아보기 위한 χ^2 검증결과, 90개 문항 중 87개 문항이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고, 나머지 3개 문항(1/3번, 33번, 70번)은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3개 문항은 Cramer의 V계수가 .25미만으로써, 변별도 지수의 일

반적인 수용수준인 .25이상을 만족시켜 주지 못해 제외되는 문항으로 나타났다. 3개 문항을 제외한 87개 문항은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Cramer의 V계수가 .29 - .73의 범위를 보이므로 변별도 측면에서 양호한 문항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2. 타당도

우선 문항들의 구조를 파악하고 척도구성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로, 앞서 문항변별도 분석에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 87개 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요인분석절차는 요인수를 지정하지 않고 주성분 분석을 실시한 후 varimax방법으로 회전시키고, 요인부하값이 .30이상인 문항만을 선택하였다. 그 결과 10개 문항이 제외되고 77개 문항이 선정되었으며, 요인구조는 <표 3>과 같다.

'요인 1'은 전체변량의 19.94%를 설명하는 주요인으로서 23개 문항이 포함되는데, 이는 부모의 행동이나 요구 등으로 인해 아동이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 부담이나 갈등을 나타내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부모관련 스트레스'라고 명명할 수 있다.

전체설명변량의 4.40%를 차지하는 '요인 2'는 가족관계와 경제상태, 가정분위기 등과 관련된 불만이나 심리적 고통 등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가정환경관련 스트레스'라고 명명할 수 있다. 이 요인에는 15개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요인 3'은 전체변량의 3.96%를 설명해 주고 11개의 문항이 포함되는데, 이 요인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친구관련 스트레스'라고 명명할 수 있다.

12개의 문항이 포함되는 '요인 4'는 전체변량의 3.73%를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는 공부나 시험, 과외활동 등의 학업수행 및 성취와 관련된 긴장이나 걱정, 부담을 나타내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학업관련 스트레스'라고 명명할 수 있다.

'요인 5'는 전체설명변량의 3.44%를 차지하고 14개 문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요인은 선생님의 수업방식이나 태도, 학교생활에서 오는 불만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교사 및 학교관련 스트

〈표 2〉 문항별 변별도

문항	X ²	Cramer's V	문항	X ²	Cramer's V
1(1)	47.06**	.46	45	100.56**	.68
1(2)	28.67**	.36	46	66.59**	.55
1(4)	35.72**	.40	47	47.90**	.47
2	53.73**	.50	48	64.02**	.54
3	21.93**	.32	49	66.95**	.55
4	23.66**	.33	50	40.13**	.43
5	60.38**	.53	51	70.99**	.57
6	60.40**	.53	52	55.02**	.50
7	50.39**	.48	53	48.65**	.47
8	52.03**	.49	54	21.88**	.32
9	69.11**	.56	55	55.25**	.50
10	72.73**	.58	56	54.67**	.50
11	62.28**	.53	57	42.42**	.44
12	28.02**	.36	58	78.81**	.60
13	59.63**	.52	59	107.87**	.70
14	31.49**	.38	60	93.93**	.65
15	50.38**	.48	61	82.82**	.61
16	69.82**	.57	62	47.43**	.47
17	68.55**	.56	63	32.90**	.39
18	73.97**	.58	64	101.52**	.68
19	100.86**	.68	65	98.83**	.67
20	52.15**	.49	66	75.53**	.59
21	77.61**	.60	67	55.81**	.50
22	63.92**	.54	68	84.25**	.62
23	21.42**	.31	69	87.52**	.63
24	79.90**	.60	71	76.27**	.59
25	78.98**	.60	72	89.81**	.64
26	53.28**	.49	73	38.96**	.42
27	76.26**	.59	74	76.88**	.59
28	34.31**	.40	75	53.03**	.49
29	80.52**	.61	76	53.75**	.50
30	37.06**	.41	77	16.96**	.28
31	33.41**	.39	78	81.49**	.61
32	48.43**	.47	79	88.95**	.64
34	90.32**	.64	80	92.27**	.65
35	53.69**	.50	81	76.34**	.59
36	21.42**	.31	82	18.64**	.29
37	71.07**	.57	83	22.67**	.32
38	81.07**	.61	84	106.04**	.70
39	79.54**	.60	85	108.17**	.70
40	36.95**	.41	86	107.59**	.70
41	52.38**	.49	87	115.73**	.73
42	37.27**	.41	88	63.70**	.54
43	64.56**	.54	89	77.90**	.60
44	44.57**	.45	90	50.45**	.48

** p<.001

누락된 문항[1(3), 33, 70]은 변별도 분석결과 변별력이 낮아 제외된 문항임.

〈표 3〉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의 요인행렬표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인6	h ²
61	.71						.54
19	.68						.53
72	.60						.45
90	.57						.34
17	.57						.37
37	.56						.43
87	.54						.49
79	.53						.45
29	.51						.35
34	.50						.38
51	.48						.38
18	.47						.32
25	.47						.34
75	.44						.29
59	.44						.49
15	.43						.36
21	.42						.36
13	.41						.26
84	.41						.42
10	.38						.28
78	.36						.36
5	.31						.23
73	.30						.20
36		.65					.46
27		.59					.53
9		.55					.40
24		.54					.48
50		.52					.34
26		.51					.34
35		.44					.30
20		.44					.28
85		.40					.47
32		.38					.36
31		.37					.24
16		.37					.30
22		.35					.28
86		.34					.35
11		.33					.29
68			.73				.59
69			.66				.53
64			.65				.55
66			.57				.42

〈표 3〉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의 요인행렬표(계속)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인6	h ²
65			.49				.45
71			.47				.35
67			.44				.29
80			.41				.44
52			.39				.34
47			.37				.28
74			.35				.24
49				.62			.45
58				.59			.49
38				.55			.44
41				.50			.33
39				.47			.34
6				.46			.31
81				.46			.44
89				.43			.31
8				.40			.30
1(2)				.37			.20
40				.34			.29
4				.33			.14
57					.55		.37
46					.52		.43
88					.52		.40
42					.49		.29
44					.46		.29
55					.45		.33
54					.44		.22
60					.44		.44
45					.44		.38
56					.38		.25
43					.38		.29
53					.36		.24
48					.30		.20
77					.30		.12
62						.47	.31
83						.47	.26
82						.46	.25
76						.43	.29
12						.35	.22
14						.32	.18
고 유 값	17.61	3.16	2.75	2.54	2.26	1.95	
설명변량	19.94	4.40	3.96	3.73	3.44	3.10	
총설명변량	38.56						

〈표 4〉 요인별 단계별 회귀분석결과

요 인	문 항	문항이 추가된 후의 R ²	요 인	문 항	문항이 추가된 후의 R ²
요인 1	19	.47	요인 3	80	.78
	87	.67		71	.84
	84	.74		65	.88
	17	.78		66	.91*
	51	.82		67	.94
	78	.85		*74	.96
	34	.88		*47	.99
	29	.91		*69	1.00
	*72	.93	요인 4	38	.46
	*21	.94		41	.61
	*37	.95		40	.71
	* 5	.96		58	.78
	*59	.96		6	.84
	*10	.97		8	.88
	*18	.97		89	.91
	*90	.98		* 4	.93
	*25	.98		*1(2)	.95
	*61	.99		*39	.97
	*73	.99		*49	.99
*13	.99	*81	1.00		
*75	1.00	요인 5	46	.41	
*79	1.00		60	.61	
*15	1.00		57	.71	
요인 2	27		.51	44	.78
	24		.67	48	.83
	9		.77	56	.87
	35		.82	43	.90
	32		.86	*53	.92
	85		.89	*55	.94
	20		.92	*45	.96
	*31		.94	*54	.97
	*22		.95	*88	.98
	*50		.96	*42	.99
	*11	.97	*77	1.00	
	*16	.98	요인 6	76	.47
	*86	.99		83	.72
*26	.99	12		.84	
*36	1.00	14		.91	
요인 3	68	.55		82	.96
	64	.70		62	1.00

* 설명력 증가분이 3% 미만으로 제외되는 문항

레스'라고 명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6개의 문항이 포함된 '요인 6'은 전체 변량의 3.10%를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 요인은 아동이 접하고 있는 사회환경이나 주변의 상황과 관련된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주변환경관련 스트레스'라고 명명할 수 있다.

이 연구결과 도출된 이상의 6개 요인은 최근의 연구에서까지 그대로 수용되어 사용되는 Mechanic (1962)의 스트레스 요인분류와 차이를 보였다. Mechanic은 스트레스 요인을 가정생활, 학교생활, 사회적 관계, 및 개인영역 등의 4개 영역으로 분류했는데, 이 연구에서는 가정생활이 부모관련요인과 가정환경요인으로, 학교생활은 학업요인과 교사 및 학교관련요인으로 각각 세분화되는 한편, 개인영역은 특징적인 요인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이는 학업성취를 특히 중요시하는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가정환경과 별도로 부모의 태도나 요구로 인한 스트레스가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또한 학교생활과 별도로 학업스트레스가 별개의 요인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 연구결과 개인영역요인이 별도로 분류되지 않은 것은 청소년이나 성인에 비해 아동들은 아직 자아에 대한 인식이 약해 개인적인 용모나 특성으로서는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는 보다 적은 수의 좋은 문항들을 추출하기 위해 하위요인별로 단계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즉 각 요인별로 포함되는 문항들의 개별점수를 합하여 구성된 척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개별문항을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별 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개별문항을 추가함에 따라 증가되는 설명력의 증가분이 3% 이상인 문항만 척도구성에 포함시켰다. 요인별로 단계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를 보면, '요인 1'의 경우는 8개 문항만이 3% 이상의 설명력 증가를 보여 척도구성에 포함되는데, 이 8개 문항은 전체분산의 91%를 설명하고 있다.

'요인 2'에서는 7개 문항이 설명력이 높은 문항으로 선정되었는데, 이들은 전체분산의 92%를 설명해준다.

'요인 3'의 경우는 4개 문항이 3% 미만의 설명력 증가분을 보여 제외되고, 나머지 7문항이 척도구성에 포함되는데, 이들은 전체분산의 94%를 설명해주고 있다.

'요인 4' 역시 7개 문항이 척도구성에 포함되는 문항으로 선정되었고, 이들은 전체분산의 91%를 설명해준다.

'요인 5'에서도 설명력 증가분이 3% 이상인 경우가 7개 문항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전체분산의 90%를 설명해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요인 6'의 경우는 6개 문항 모두가 3% 이상의 설명력 증가분을 보여 모든 문항이 척도구성

<표 5>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전체) 및 각 요인과 생활의 질과의 상관계수

	총스트레스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생활의 질
총스트레스	1.00							
요인 1	.83**	1.00						
요인 2	.80**	.65**	1.00					
요인 3	.78**	.54**	.58**	1.00				
요인 4	.76**	.56**	.47**	.52**	1.00			
요인 5	.74**	.58**	.51**	.46**	.47**	1.00		
요인 6	.61**	.39**	.40**	.36**	.34**	.37**	1.00	
생활의 질	-.52**	-.40**	-.46**	-.42**	-.39**	-.41**	-.26**	1.00

**p < .001

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42개 문항이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척도 구성에 적합한 문항으로 선정되었다.

한편,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서 개발된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의 기준관련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본 척도와 Olson과 Barnes(1982)의 삶의 질(Quality of Life) 척도와와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두 척도간 상관계수가 $r = -.52$ ($p < .001$)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가 타당한 것으로 지지되었다. 또한 하위요인별로도 기준척도와와의 상관계수를 살펴본 결과,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신뢰도

이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서는 내적합치도를 구체적인 계수로 나타내주는 Cronbach의 α 계수를 산출했다. 그 결과 <표 6>과 같이, $\alpha = .85$ 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를 보면, '요인 6'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요인은 모두 .70이상으로 만족할만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요인 6'의 경우도 문항수가 다른 요인들에 비해 적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문제시 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표 6>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의 문항수 및 신뢰도 계수

하위요인	문항수	Cronbach's α
요인 1	8	.80
요인 2	7	.78
요인 3	7	.79
요인 4	7	.73
요인 5	7	.70
요인 6	6	.62
전 체	42	.85

V. 요약 및 결론

우리나라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신뢰할 수 있고 타당한 척도가 아직까지 개발되지 못해 기존의 연구들이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는 외국의 척도를 그대로 번안하여 사용하거나 혹은 체계적인 검증절차 없이 연구자들 임의로 스트레스 척도를 제작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들을 수집하고, 다음으로 우리나라 특유의 사회문화적 상황과 관련된 스트레스 요인을 파악하고 또한 기존 연구들에 포함되지 않은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 20명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실시한 후, 기존 연구와 면접결과를 토대로 총 90 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제작하였다. 그런 다음 서울시 소재 국민학교 5개교의 4학년과 6학년 아동 470명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먼저 질문지에 포함된 90개 문항에 대해 문항양호도 검증을 위한 변별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 문항이 낮은 변별력을 보여 제외되고 87개 문항이 선정되었다.

다음으로 척도구성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요인부하량이 .30이상인 문항만을 선택하였는데, 그 결과 77개 문항이 선정되고 6개 요인이 도출되었다. 또한 보다 적은 수의 설명력 높은 문항들로 척도를 정선하고자 하위요인별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설명력 증가분이 3% 미만인 문항은 제외시켰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42개 문항이 척도구성에 적합한 것으로 선정되었으며, 도출된 6개 요인은 '부모관련 스트레스', '가정환경관련 스트레스', '친구관련 스트레스', '학업관련된 스트레스', '교사 및 학교생활관련 스트레스', '주변환경관련 스트레스'로 각각 명명되었다.

'부모관련 스트레스 요인'은 부모의 행동이나 요구 등으로 인해 아동이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 부담감이

나 갈등을 나타내는 문항들로서, 8개 문항이 선정되었다. '가정환경관련 스트레스 요인'은 가족관계나 경제상태, 가정분위기 등, 가정환경에서 비롯된 불만이나 심리적 고통을 나타내는 문항들로 구성되었으며, 7개 문항이 선정되었다. 7개 문항이 선정된 '친구관련 스트레스 요인'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와 관련된 문항들로 이루어졌다. '학업관련 스트레스 요인' 역시 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학업수행 및 성취와 관련된 긴장이나 걱정, 부담 등을 나타내는 문항들로 이루어졌다. '교사 및 학교관련 스트레스 요인'에서도 7개 문항이 선정되었는데, 이는 선생님의 태도나 학교생활에서 오는 불만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6개 문항이 선정된 '주변환경관련 스트레스 요인'은 아동이 접하고 있는 사회환경이나 주변상황과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이 연구에서 도출된 이러한 요인구조는 기존의 스트레스 척도구성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최근에 국민학교 고학년용 스트레스 척도개발을 위해 예비연구를 한 류수영(1993)은 스트레스의 영역을 대인관계영역과 당면과제영역으로 대별한 후, 다시 하위영역별로 4요인으로 세분화하였다. 즉 대인관계영역은 가족관계, 동성친구관계, 이성친구관계, 교사와의 관계로 나누고, 또 당면과제영역은 학업문제, 오락 및 여가활동문제, 건강 및 신체발육문제, 일상생활문제로 세분화하여 총 8개 요인으로 구분하여 스트레스 척도를 구성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이상의 8개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을 모두 포함시켜 조사했지만, 분석결과 6개 요인만이 도출되었다. 이는 류수영(1993)의 척도구성은 연구자 자신이 제한점으로 지적했듯이 경험적인 연구결과를 통해 요인이 도출된 것이 아니라, 연구자 자신이 임의로 요인을 분류하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아동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요인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윤혜정(1993)은 Mechanic(1962)의 스트레스 요인분류를 그대로 받아들여 사용했는데, Mechanic(1962)은 스트레스를 가정생활, 학교생활, 사회적 관계, 개인영역 등의 4개 요인으로 분류하여 척도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가정생활이 부모관련요인과 가정환경요인으로, 학교생활은

학업요인과 교사 및 학교관련요인으로 각각 세분화되는 한편, 개인영역은 별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서구와 우리나라간의 사회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와같은 과정을 거쳐 개발한 척도의 기준 관련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본 척도와 Olson과 Barnes(1982)의 삶의 질 척도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r = -.52$, ($p < .001$)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의 타당성이 지지되었다.

끝으로 본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의 α 계수를 산출하였는데, 그 결과 $\alpha = .85$ 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도 .62 - .80의 범위로 문항수를 고려할 때 만족할만한 수준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연구에서 개발한 '한국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부록참조)'는 우리나라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측정할 수 있는 신뢰롭고 타당한 도구라고 결론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도 지니므로, 앞으로 이들 제한점을 보완하는 후속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이 연구는 서울시내 일부 국민학교 아동을 유의표집하였다는 점에서 본 척도를 놓어준, 도서벽지 등의 아동에게 일반화하는데는 약간의 무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한국의 여러 지역과 보다 많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 일반화 수준을 높이는 것이 요망된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자기 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함에 따라 질문지 답변능력을 고려하여 고학년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저학년 아동의 스트레스도 조사할 수 있는 대안적인 방법이 마련되어 저학년 아동도 포함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개발된 척도의 안정성을 검증하는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산출하지 못했으므로, 추후연구에서는 이의 보완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검증절차를 거쳐 한국의 사회문화적 상황에 맞는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를 개발하고자 시도하고, 아울러 후속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참 고 문 헌】

- 1) 류수영(1993). 국민학교 고학년용 생활스트레스 척도의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2) 윤혜정(1993).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사회관계망 지지 지각.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3) 천민필(1993). 국민학교 아동의 스트레스 요인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4) 최창호(1993). 아동기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5) 한미현(1993). 가정의 경제적 스트레스 및 부모의 지지에 따른 아동의 행동문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182-194.
- 6) Compas, B. E.(1987). Coping with stress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Psychological Bulletin*, 101(3), 393-403.
- 7) Compas, B. E.(1987). Stress and life events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Clinical Psychology Review*, 7, 275-302.
- 8) Compas, B. E., & Wagner, B. M.(1991). Psychosocial stress during adolescence : Intra personal and interpersonal process. In M. E. Colten and S. Gore(Eds.), *Adolescent Stress*(pp.67-85). N. Y. : Aldine.
- 9) Dohrenwend, B. P., & Shrout, P. E.(1985). "Hassles" in the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life stress variables. *American Psychologist*, 40, 780-785.
- 10) DuBois, D. L., Felner, R. D., Brand, S., Adan, A. M., & Evans, E. G.(1992). A prospective study of life stress, social support, and adaptation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3, 542-557.
- 11) Dubow, E. F., & Tisak, J.(1989). The relation between stressful life events and adjustmen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 The role of social support and social problem-solving skills. *Child Development*, 60, 1412-1423.
- 12) Felner, R. D., & Felner, T. Y.(1989). Primary prevention program in the educational context : A transactional-ecological framework and analysis. In I. A. Bond & B. E. Compas(Eds.), *Primary prevention and promotion in the schools*(pp. 13-49). Newbury Park, CA : Sage.
- 13) Holahan, C. K., Holahan, C. J., & Belk, S. S. (1984). Adjustment in aging : The role of life stress, hassles, and self-efficacy. *Health Psychology*, 3, 315-328.
- 14) Kanner, A. D., Coyne, J. C., Schaefer, C., & Lazarus, R. S.(1981). Comparisons of two models of stress measurement : Daily hassles and uplifts versus major life events. *J. of Behavioral Medicine*, 4, 1-39.
- 15) Larson, R., & Asmussen, L.(1991). Anger, worry, and hurt in early adolescent : An enlarging world of negative emotion. In M. E. Colten & S. Gore (Eds.), *Adolescent stress*(pp.21-42), N. Y. : Aldin.
- 16) Lazarus, R. S., & Cohen, J. B.(1977). Environmental stress. In L. Altman & F. Wohlwill(Eds.), *Human behavior and environment : Current Theory and Research*, 2 (pp.89-127), N. Y. : Plenum.
- 17) Lempers, J. D., & Clark-Lempers, D.(1990). Family economic stress, maternal and paternal support and adolescent distress. *J. of adolescence*, 13, 217-229.
- 18) Lempers, J. D., Clark-Lempers, D., & Simon, R. L.(1989). Economic hardship, parenting, and distress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0(1), 25-39.
- 19) Newcomb, M. D., Huba, G. J., & Bentler, P. M. (1981). A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stressful life events among adolescents : Derivation and

- correlates. *J.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2, 400-415.
- 20) Olson, D., & Barnes, H.(1982). Quality of life. In D. Olson(Ed.). *Family inventories*. Family Social Science : Univ. of Minnesota.
- 21) Rowlison, R. T., & Felner, R. D.(1988). Major life events, hassles, and adaptation in adolescence : Confounding in the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life stress and adjustment revisited.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3), 432-444.
- 22) Selye, H.(1956). *The stress of life*. New York : McGraw-Hill.
- 23) Zarski, J. J.(1984). Hassles and health : A replication. *Health Psychology*, 3, 243-251.

부 록
(한국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

요 인	번호	질 문 내 용
부모관련 스트레스	1(19)	나는 부모님이 늘 공부하라고 말씀하셔서 짜증이 난다.
	2(87)	부모님이 내 생각이나 의견을 존중해주지 않아 불만이다.
	3(84)	부모님이 나에게 시키는 일이 많아서 괴롭하다.
	4(17)	부모님이 나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참견하셔서 짜증이 난다.
	5(51)	부모님이 내 성적에 너무 신경쓰셔서 부담스럽다.
	6(78)	나는 부모님과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지 못해 불만이다.
	7(34)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을 부모님이 살 사주지 않아 불만이다.
	8(29)	내게 기는 부모님의 기대와 요구가 너무 커서 부담스럽다.
가정환경관련 스트레스	9(27)	우리 가족은 그다지 화목한 편이 못되어서 속상하다
	10(24)	가족들이 나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아 불만이다.
	11(9)	우리 집이 가난해서 속상하다.
	12(35)	나는 필요한 물건들을 제대로 살 수가 없어 속상하다.
	13(32)	나는 집이 좁아서 속상하다.
	14(85)	우리 집 분위기가 마음에 안든다.
15(20)	나는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속상하다.	
친구관련 스트레스	16(68)	친구들이 나를 따돌리는 것 같아 속상하다.
	17(64)	친구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속상하다.
	18(80)	나는 친구들과 마음껏 어울리지 못해 불만이다.
	19(71)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나보다 딴 아이를 더 좋아해 속상하다.
	20(65)	나는 친구들과 이야기가 잘 통하지 않아 불만이다.
	21(66)	친구들이 나를 놀려 화가 난다.
22(67)	나는 마음에 맞는 친구가 없어서 속상하다.	
학업관련 스트레스	23(38)	나는 학업성적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인다.
	24(41)	나는 시험을 볼 때마다 초조하고 긴장이 된다.
	25(40)	나는 다니고 있는 학원이나 과외활동이 많아 힘들다.
	26(58)	열심히 노력해도 성적이 잘 오르지 않아 걱정이 된다.
	27(6)	앞으로 해야 할 공부를 생각하면 걱정이 앞선다.
	28(8)	내가 장차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지 고민이 된다.
29(89)	대학에 못 들어 가면 안된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걱정이 된다.	
교사 및 학교 관련 스트레스	30(46)	선생님이 몇몇 학생만을 편애하는 것 같아 불만이다.
	31(60)	나는 학교생활에 적응하기가 힘들다.
	32(57)	나는 선생님의 수업방식이 마음에 안든다.
	33(44)	숙제가 많아 부담스럽다.
	34(48)	학교에서 나보다 힘센 친구들이 괴롭혀서 속상하다.
	35(56)	선생님이 다른 아이들 앞에서 창피를 주곤 해 불만이다.
36(43)	나는 교실이나 화장실 등, 학교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낀다.	
주변환경관련 스트레스	37(76)	나는 학교에 오고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짜증스럽다.
	38(83)	버스나 전철이 복잡해서 짜증이 난다.
	39(12)	나는 우리 동네가 싫다.
	40(14)	주위가 시끄러워 공부하는데 방해가 된다.
	42(82)	차가 너무 막혀 짜증스럽다.
42(62)	학교가 멀어서 다니기가 힘들다.	

()는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질문지 번호로서,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항번호와 일치함.